

# ‘농도’ 전남 고령화 심각…10년새 청년 농가 ‘반토막’

‘농업인의 날’ 통계로 본 전남 농업 10년 변화상

농가 16만7086→14만6024가구로 12.6%↓…전국 14.2% 비중  
‘1인 농가’ 28%·60세 이상 80%…농가소득 55% 상승한 4723만원

올해 11월11일은 27번째 ‘농업인의 날’이다. 농업인의 날은 1964년 농촌계몽운동가 원흥기 선생이 흙(土)이 ‘집(十)’과 ‘일(一)’로 이뤄진 점에 착안해 제안한 날로 1996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됐다.

농도(農道) 전남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급격한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겪으며 2만 가구 넘는 농가가 감소했고, 이 가운데 20~30대 청년 농가는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전남 농가는 다른 소득 활동을 찾으면서 평균 소득을 1700만원 가까이 올렸지만, 농업 자체와 물가·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채와 경영비도 각각 1000만원 안팎 늘어났다.

10일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지

난해 기준 전남 농가는 14만6024가구로, 10년 전인 2011년(16만7086가구)보다 12.6%(2만1062가구) 감소했다.

전남 농가는 전국(103만1210가구)의 14.2% 비중을 차지하며 경북(16만9774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다.

같은 기간 전남 농가 인구는 37만9767명에서 29만551명으로, 23.5%(8만9216명) 줄었다.

농촌 인력난과 고령화 영향으로 1인 농가 비중은 2011년 21.0%(3만5044가구)에서 28.1%(4만1043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전남 1인 농가 비중은 전국 평균(21.1%)을 훌쩍 넘을뿐더러 17개 시·도 가운데가

장 높았다.

경영주 나이가 20~30대인 전남 농가는 지난해 1258가구로, 전체 농가의 0.9% 비중에만 불과했다.

지난 10년 동안 20~30대 농가는 2560가구에서 1258가구로, 반토막(-50.9%) 났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경영주 농가는 11만7997가구에서 11만8000가구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비중은 70.6%에서 80.8%로 1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전남 농가의 46.3%는 논벼 농사를 지었다. 논벼 농가 수는 6만7681가구로, 10년 전보다 14.9%(-1만1851가구) 줄어든 규모다.

논벼에 이어 작물별로는 채소·산나물이 26.5%(3만8676가구), 과수 11.5%(1만6733가구), 식량 작물 6.6%(9649가구), 축산 4.6%(6729가구), 기타작물 4.5%(6555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10년간 농가당 평균 소득은 농외소득이 크게 늘면서 55.2% 뛰었다.

지난해 전남 농가소득은 4722만8000원으로, 10

년 전(3042만9000원)보다 55.2%(1680만원) 증가했다.

10년 전 전남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3014만8000원)을 웃돌며 전국 9개 도(道) 가운데 5번째로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평균(4775만9000원)을 밑돌며 7위로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1148만3000원에서 1285만2000원으로 11.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농외소득은 959만3000원에서 1582만8000원으로 65.0% 급증했다.

농업경영비는 10년 새 1000만원 가까이 늘었다. 전남 농가당 평균 농업경영비는 지난 2011년 1574만원에서 지난해 2567만1000원으로, 63.1%(993만1000원) 증가했다.

가장 많이 오른 부문은 보험료로 10년 새 767.3%(8만7000원→75만6000원) 상승했다. 이외 동물비(323.8%↑), 사료비(298.4%), 광열비(298.4%), 유통비용(146.0%) 등 상승률이 높았다.

전남 농업경영비는 10년 전 전국 평균(1770만

4000만원)을 밑돌며 9개 도 중 8번째였지만, 지난해는 평균(2422만9000원)을 웃돌며 5번째로 높았다.

최근 10년간 농가당 평균 부채는 전남이 60.8% 뛰면서 제주(222.1%)에 이어 9개 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늘었다.

전남 농가부채는 2011년 1671만8000원에서 지난해 2688만5000원으로, 60.8%(1016만7000원)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를 활용하는 농가는 지난해 6만8295가구로, 전체의 46.8% 비중을 차지했다.

전반적인 농가 감소 추세 속에서 컴퓨터를 보유한 농가는 10년 전 5만4567가구에서 지난해 2만4439가구로, 오히려 55.2%(-3만128가구) 줄었다.

지난해 전남 경지면적은 28만1077ha(헥타르)로, 10년 전(30만3975ha)보다 7.5%(-2만2898ha) 줄었다. 지난 10년 동안 광주 광산구(2만2279ha) 규모 경지가 전남에서 사라진 셈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빼빼로 대신 가래떡으로…농민도 돕고 우리쌀도 즐겨요”



박서홍(오른쪽 4번째) 농협 전남본부장 등이 10일 ‘농업인의 날’을 하루 앞둔 전남쌀로 만든 가래떡과 우유를 지역 청소년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 농협 전남본부, 가래떡 나눔 행사

“빼빼로 대신 몸에 좋은 가래떡 드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0일 전남도, 전남도교육청과 ‘농업인의 날’(11월11일)을 맞아 가래떡 대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협은 무안 남악고등학교, 전남도교육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은행 전남영업부 등의 직원·고객·학생들에게 전남쌀 대표품종(새청무)으로 만든

가래떡을 나눠줬다.

새청무는 전남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미질이 좋고 밥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사에는 박서홍 농협전남본부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일 남악고등학교장, 정해정 전남낙농농협조합장, 이장기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3000여 개의 가래떡과 우유를 나눠 주며 농업인의 날과 가래떡 데이를 꼭 기억하고 쌀 소비

확대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남악고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빼빼로 대신 건강에 좋은 가래떡과 우유 나눔 행사도 했다.

박 본부장은 “가래떡과 우유를 먹으면서 주식인 쌀의 소중함과 우리 몸에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상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교육

### 16일 수출입기업 임직원 대상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FTA활용지원센터는 오는 16일 광주상의 지하교육장에서 관내 수출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교육’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한-미 FTA, 한-아세안 FTA 등 우리나라가 상품을 수출한 FTA 교역국 세관에서의 사후검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수출입기업 담당자들이 FTA 특혜세를 적용 요건 등 FTA 원산지 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사후검증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마련됐다.

교육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된다. 서형석 제이엑스 관세법인 관세사가 ▲FTA 원산지 검증 개요 ▲FTA의 원산지 검증 규정 및 절차 ▲한-미 FTA 원산지 검증 ▲FTA 검증 요소별 사례 분석 ▲검증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연한다.

교육을 수강하면 수출 담당자들은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FTA 사후검증 요구시 대응 방법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료 시 ‘인증수출자 점수 10점’을 획득할 수 있어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준비 중인 기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후형 광주FTA활용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FTA가 확장되는 추세이지만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FTA 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늘고 있어 해당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오류 적발 시 사안에 따라 상당히 큰 금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에 대한 문의는 광주FTA활용지원센터 전화(062-350-5865)로 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영광 노후 농가 전기 시설 점검

### ‘마중물 봉사회’ 15년째 재능 나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마중물 봉사회’는 10일 영광군 군서면 농가를 찾아 전기시설을 점검·수리하는 봉사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마중물 봉사회는 전기와 건축, 기계 부문 등 전문 기술인력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봉사회 이름에는 ‘작은 손길로 농어촌 희망의 마중물이 되자’는 다짐이 담겼다.

지난 2007년 결성된 뒤 15년째 재능 나눔을 지

속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48개 마을 농·어가 258가구를 찾았다. 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890명이다.

오래된 농가 주택 전기시설을 고치고 마을 공동시설을 점검·수리하고 있다.

성도남 전남본부장은 “마중물 봉사회가 농어촌 지역의 공영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 화순, 전원주택 부지, 매매  
2. 약 4800평  
3. 매매 - 16억 8천만원  
4. 문의 . 010 - 3605 - 5000